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지식, 인식과 실천

정지나*, 문인오**

원광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Hospital Employees' Knowledge, Recognition and Practice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Ji-Na Jeong*, Inn-Oh Moon**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Dep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BSTRAC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spital employees' knowledge, recognition and practice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 total of 250 hospital employees were selected using convenient sampling in J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program and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verage score for knowledge, recognition and practic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ender, education, hospital size and there was a correlation among knowledge, recognition and prac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develop education program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hospital employees.

Key Words : Personal Information, Hospital Employees, Knowledge, Recognition, Practice

I.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정보화로 인한 환자의 개인정보의 노출 및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화로 인해 디지털화된 개인의료정보가 폭발적으로 생성

되고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로 집약적으로 통합되어 보안의 위협이 커졌으며 또한 인터넷 등 웹 환경 확대에 따른 병원환경이 개방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협요소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e-Health, u-Health 등과 같은 IT 기술발전에 의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더욱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1].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란 병원 의무기록과 진료 과정중 취득한 환자에 대한 정보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data)가 포함된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 정보(sensitive data)’로 분류하여 특별 취급하고 있고 병원정보화를 통해 전자의무기록, PACS 등으로 디지털화되어 원격진료, u-Health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2].

의료영역에서의 개인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비교하여 유출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기존의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각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하여 규율하던 것을 2011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해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 마련과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3].

외국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여러 나라가 합의하는 통일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1980년 채택된 것이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지침에 이사회 권고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로서 각국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

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환자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DHHS는 2003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인 건강정보 보안규정 (Health Insurance Privacy Rule)을 기존의 HIPPA에 추가함으로써 의료공급자가 환자의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적 장치를 마련하였다[4].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안전행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대형병원의 경우 전산담당자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 이수와 자율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전과 비교할 때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진단이다[5]. 개인 정보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식 또는 실천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간호대학생,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6-9]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식 또는 실천정도를 비교한 연구[4, 10-11] 등이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조직 내 정보유출의 대부분은 내부에 의한 것이 외부에 의한 것보다 7:3의 비율로 많이 나타나 실제로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2]. 따라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관리하고 있는 의료 기관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등 다각도의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으나 대형병원에 비해 중소규모 병원을 대상으

로 한 실태조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생산, 보관,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식, 인식 및 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식, 개인정보 보호행위에 관한 인식도와 실천의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J도 소재 병·의원의 의료기관 종사자 250명을 편의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종별 구분을 통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행정직으로 연구범위를 정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와 배선미[13]가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를 파악하는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6 문항,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지식 13 문항,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11 문항, 개인정

보 보호행위실천 23 문항,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대한 4 문항의 총 5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 점까지의 5 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지식, 인식 및 실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Cronbach’s $\alpha=0.686$,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지식 Cronbach’s $\alpha=0.911$, 개인정보 보호행위 실천 Cronbach’s $\alpha=0.92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Cronbach’s $\alpha=0.660$, Cronbach’s $\alpha=0.928$, Cronbach’s $\alpha=0.935$ 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J시에 소재하는 150명 이하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환자의 정보를 직접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4년 9월 5일부터 2014년 9월 26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대상병원에 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작성한 설문지는 연구보조원이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최초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34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7.2%였으며, 그 중 응답이 부적절한 2부를 제외하고 23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대상자 특성과 변수들의 서술통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lpha계수를 산출하였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지식, 인식과 실천정도는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였고 지식, 인식과 실천정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0-29세가 87명(36.2%), 30-39세 82명(35.3%), 40세 이상이 66(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 214명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였다. 최종학력은 전문대학교 졸업이하가 142명(62%), 4년제 대학 졸업이 87명(38%)으로 나타났으며 병원규모는 80 병상 이하가 64.1%였고, 100병상 이상이 35.9%의 분포를 보였다. 직종은 간호사가 120명(51.7%), 간호조무사 68명(29.3%), 의료기사 및 행정직 44명(19%)으로 조사되었다. 근무경력을 보면 5년 미만이 110명(42.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5-9년 53명(22.8%), 10-14년 32명(13.9%), 15년 미만이 32명(13.9%)순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실태

1)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지식, 개인정보 보호 행위에 대한 인식과 실천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과 인식, 행위에 대한 실천정도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가 지식 평균점수가 여자보다 높았다. 학력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졸업의 경우 지식 평균점수가 전문대 졸업이하 보다 높았다. 병원규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식, 인식과 실천정도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100병상이상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식, 인식과 실천정도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N=23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20-29	84(36.2)
	30-39	82(35.3)
	≥40	66(28.5)
Gender	Male	18(7.8)
	Female	214(92.2)
Education	University	87(38.0)
	College or High school	142(62.0)
Hospital Size	≥100	83(35.9)
	≤80	148(64.1)
Occupation	Nurse	120(51.7)
	Nurse Assistant	68(29.3)
	Administrators	44(19.0)
Vocational experiences	<5	114(49.4)
	5-9	53(22.8)
	10-14	64(27.8)

2)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관련 항목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는 학력, 병원규모, 직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는데 대학교 졸업이상인 경우, 100명상 이상, 간호사인 경우 교육 경험율이 높았다

개인정보교육필요횟수는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연 4회 이상, 전문대 졸업 이하에서는 연 1회가 가장 많았다. 교육방법은 연령, 병원규모,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의 경우 20대에서는 온라인 교육, 30대의 경우 집체교육, 40대 이상에서는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병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여부는 연령, 경력에 따라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연령, 경력이 낮을수록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2>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Recognition			Practice		
		M(SD)	t/F	p	M(SD)	t/F	p	M(SD)	t/F	p
Age	20-29	2.59(0.55)	0.69	.498	3.43(0.41)	0.54	.582	3.26(0.49)	1.59	.205
	30-39	2.67(0.64)			3.43(0.46)			3.25(0.52)		
	≥40	2.71(0.66)			3.49(0.47)			3.39(0.49)		
Gender	Male	3.04(0.65)	2.62	.017	3.63(0.43)	1.88	.075	3.46(0.43)	1.68	.108
	Female	2.62(0.59)			3.43(0.45)			3.28(0.51)		
Education	University									
	College or High school	2.78(0.62)	2.53	.012	3.51(0.47)	1.58	.116	3.30(0.55)	0.28	.780
		2.57(0.59)			3.41(0.43)			3.28(0.48)		
Hospital Size	≥100	2.79(0.55)	2.58	.011	3.56(0.42)	2.92	.004	3.46(0.45)	3.69	.001
	≤80	2.58(0.64)			3.39(0.45)			3.21(0.52)		
Occupation	Nurse									
	Nurse	2.68(0.58)	1.93	.148	3.48(0.43)	2.60	.076	3.28(0.51)	0.09	.912
	Assistant	2.53(0.70)			3.35(0.48)			3.31(0.54)		
	Administrators	2.75(0.54)			3.52(0.42)			3.31(0.46)		
Vocational experiences	<5	2.64(0.61)	0.04	.959	3.45(0.43)	0.50	.609	3.29(0.49)	1.40	.249
	5-9	2.67(0.59)			3.39(0.51)			3.19(0.55)		
	≥10	2.55(0.62)			3.47(0.38)			3.36(0.48)		

<Table 3> Edu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Education experience			Number of education(yrs)				Education method				Usefulness of practice								
	n(%)		p	χ^2	n(%)			χ^2	p	n(%)		χ^2	p							
	Yes	No			1	2	≥ 3			Lecture	On-line			Paper	Mixed method	Yes	No			
Age	20-29	55(38.2)	27(32.1)	2.41	.300	26(35.6)	34(41.0)	21(30.0)	2.96	.565	24(29.3)	26(51.0)	16(44.4)	14(23.7)	15.36	.018	44(30.1)	37(44.6)	11.58	.003
	30-39	53(36.8)	28(33.3)			28(38.4)	29(34.9)	25(35.7)			35(42.7)	16(31.4)	11(30.6)	20(33.9)			49(33.6)	33(39.8)		
	≥ 40	36(25.0)	29(34.5)			19(26.0)	20(24.1)	24(34.3)			23(28.0)	9(17.6)	9(25.0)	25(42.4)			53(36.3)	13(15.7)		
Education	University	63(44.1)	21(25.6)	7.58	.006	18(25.0)	32(38.6)	34(50.0)	9.35	.009	26(31.7)	17(34.0)	14(40.0)	27(46.6)	3.56	.313	57(39.6)	28(34.1)	0.66	.417
	College or High school	80(55.9)	61(74.4)			54(75.0)	51(61.4)	34(50.0)			56(68.3)	33(66.0)	21(60.0)	31(53.3)			87(60.4)	54(65.9)		
Hospital Size	≥ 100	62(43.4)	19(22.6)	9.92	.002	21(28.8)	32(39.0)	25(35.7)	1.84	.398	28(34.6)	16(31.4)	7(19.4)	29(49.2)	9.29	.026	57(39.0)	24(29.3)	2.19	.139
	≤ 80	81(56.6)	65(77.4)			52(71.2)	50(61.0)	45(64.3)			53(65.4)	35(68.6)	29(80.6)	30(50.8)			89(61.0)	58(70.7)		
Occupation	Nurse	79(54.9)	37(44.0)	7.30	.026	34(46.6)	43(51.8)	40(57.1)	2.52	.640	44(53.7)	31(60.8)	16(44.4)	26(44.1)	4.46	.614	75(51.4)	43(51.8)	0.37	.830
	Nurse Assistant	34(23.6)	34(40.5)			23(31.5)	26(31.3)	16(22.9)			24(29.3)	12(23.5)	11(30.6)	21(35.6)			42(28.8)	26(31.3)		
	Administrators	31(21.5)	13(15.5)			16(21.9)	14(16.9)	14(20.0)			14(17.1)	8(15.7)	9(25.0)	12(20.3)			29(19.9)	14(16.9)		
Vocational experiences	< 5	73(51.0)	40(47.6)	0.26	.876	35(47.9)	41(50.0)	33(47.1)	0.33	.988	39(47.6)	24(47.1)	22(61.1)	25(43.1)	15.84	.015	64(44.1)	47(56.6)	9.97	.007
	5-9	31(21.7)	20(23.8)			17(23.3)	18(22.0)	18(25.7)			13(15.9)	19(37.3)	4(11.1)	17(29.3)			30(20.7)	23(27.7)		
	≥ 10	39(27.3)	24(28.6)			21(28.8)	23(28.0)	19(27.1)			30(36.6)	8(15.7)	10(27.8)	16(27.6)			51(35.2)	13(15.7)		

3.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지식, 행위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의 상관관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3개 영역별 인식정도와 실천정도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Table 4> Correlation among Recognition, Knowledge, Practice

Correlation(r)	Recognition	Knowledge	Practice
Recognition	1		
Knowledge	.422*	1	
Practice	.398*	.502*	1

* $p < .01$

IV. 논의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정신 질환,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질환, 감염병 등 자신의 병력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만으로 개인은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고립이나 낙인을 경험할 수도 있다. 혹은 회사에 입사할 경우나 보험을 가입할 때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보통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진료접수를 위해 관련 행정담당자와 대면하게 된다. 행정담당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다루게 되고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의 진료를 위한 질병 및 간호 정보를 수집하며 의료기사는 검사 시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종사자들은 매시간 수십 명의 환자를 접하고 그 정보를 수집·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환자의 개인정보는 업무 중 관련 법규의 미비나 오인, 인식부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료종사자들 간에 공공장소에서 사적인 대화를 통하여 제 3자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도 추측할 수 있다. 병원이 환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된다면 환자들은 치료에 필요한 정보 개방을 꺼리게 될 것이며 이는 원활한 치료, 간호, 검사를 방해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식과 인식정도

를 조사하고, 환자개인정보 보호행위에 관한 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추후 활용하고자 연구가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개인정보보호 지식, 인식 및 실천 평균점수는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40세 이상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희성(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14]. 의료기관에서 40세 이상인 경우는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지는 연령대로 생각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40대 이상의 경우 병원에서 직급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직급이 높을수록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정도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 직급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에서는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인식과 실천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지식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안성혁(2011)[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으므로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력은 대학졸업의 경우가 전문대 졸업 이하보다 지식, 인식 및 실천의 평균점수가 높았고 지식영역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배선미(2013)의 연구[13]에서 간호사와 행정직의 경우 최종학력에 따라 지식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학습 기회가 많아서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병원규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식, 인식과 실천정도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100병상이상의 병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식, 인식과 실천정도점수가 높게 나타나 병원규모가 클수록 인식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배선미(2013)[13]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필수 관리지침 또는 교육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행위에 대한 인식과 실천도 평균점수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인식 평균점수가 실천 평균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6-18]. 추후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대해 실천도가 낮게 나타난 원인파악을 위한 연구를 통해 실천도를 높일 있는 중재방안의 모색이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관련 항목에 대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교결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는 학력, 병원규모, 직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간호사의 교육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선미(2013)의 연구결과[13]와 유사하였다. 이는 타직종에 비해 간호사의 경우 교육 경험율이 높으므로 병원 행정직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주기는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교육방법은 연령·병원규

모·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행위실천에 도움여부는 연령, 경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전반적으로 ‘도움 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13].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정보 보호행위에 대한 지식 정도, 인식도와 실천도는 서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식정도 및 인식도가 높을수록 실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법규 및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병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 지식 및 인식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재인식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 실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일반국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취급자의 의무, 그리고 각종 규제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15] 하였으므로 보다 집중적인 관심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제언한다. 또한 각 의료기관별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의표집으로 지역적 제한점과 전체 의료종사자 중 일부만 참여하여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과 인식정도를 조사하고, 개인정보보호행위에 관한 실천도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4년 09월 05일부터 09월 26일까지 총 250부를 배부·회수하여 설문응답이 미흡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232부를 SPSS 18.0K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과 인식, 행위에 대한 실천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력, 병원규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행위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 결과는 40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의사가,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정보 보호행위에 대한 지식정도, 인식도와 실천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중소규모의 의료기

관에서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행하면서 본인들의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의료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감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행동의 실천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VI. 참고문헌

- [1] Computer world. from <http://www.com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8>/Retrieved Oct 9, 2014.
- [2] Y. Y. Jeong, A Study on Legal Protection, Inspection and Delivery of the Copies of Health & Medical Data.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Semiannual, Vol. 13, No. 1, pp. 359-395, 2012.
- [3] H. J. Lee, Problems and Solu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Medical Area.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Semiannual, Vol. 20, No. 2, pp. 267-293, 2012.
- [4] S. H. Ahn, A Study on the Level of Awareness for Patient Privacy Protec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 Health, Korea University, 2011
- [5] Korean Hospital Association News, from <http://pdf.khanews.com/2374/237405.pdf>/Retrieved Oct 9, 2014.
- [6] C. H. Kim, S. Y. Jeong, Y. S. Song, Recognition and Performance of Patient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PP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11, pp. 479-490, 2013
- [7] K. I. Jung, & H. Y. Jung, A study on the studentnurse's perception and performance protecting behavior for the patient medical information. *The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5, No. 4, pp. 65-79, 2011.
- [8] M. Y. Joung, Comparative Study of Patients and Nurses in the Perception and Performance to the Emergency Room Nurses'Behavior for Protecting Patient Privacy. Master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1.
- [9] S. Y. Kim, Nurses' Knowledge, Awareness and Performance about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ster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2.
- [10] E. Y. Jung, A Study on Perception and Practice of Protecting the Patient Medical Information in Some General Hospital Employees. Master thesis, Chosun University. 2012.
- [11] H. Park, Knowledge and Attitude of Hospital Employees towards Protecting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3.
- [12] J. Y. Choi, A study on the privacy protection in hospital information system Master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07.
- [13] S. M. Bae, Medical Practitioners' Awareness and Practice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ster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4
- [14] H. S. Choi, Hospital Employees' Recognition and attitude on the Protection of mediaal Information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010
- [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 Study on Current Privacy Policies of Medical. 2013
- [16] S. Y. Jung,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emergency-room nurse's protection behavior for the patient medical Information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of Pusan, 2007.

- [17] S. H. Choi,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emergency room nurse's protecting behavior for the patient privacy Master thesis, Ajou University, 2008.
- [18] M. Y. Lee, A study on the nurse's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Master thesis, Daejeon University, 2005.